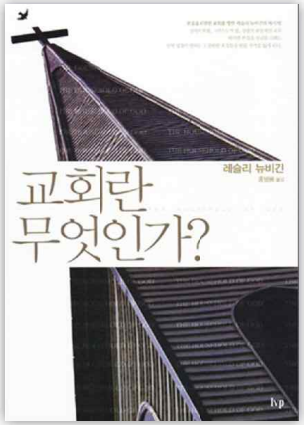
교회란 무엇인가?

레슬리 뉴비긴 저,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10

글 이승구 협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레슬리 뉴비긴의 초기 저작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에 관한 책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35년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1974년부터 영국 상황을 새로운 이교적 상황으로 보고, 이교적 인도에서 선교적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신경 쓰던 그가 새로운 이교적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조국과 그 영국의 한 부분인 유럽을 보면서 이런 정황 속에서 자신이 생각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다가 1998년 돌아간 그의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교회론은 우리들의 고민을 대한 좋은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책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그가 남인도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안식년에 스코틀란드 에딘버러에 있으면서 그가 글라스고우에 있는 트리니티 컬리쥐에서 행했던 커 강좌(Kerr Lectures)로 1952년 11월에 행했던 강연을 1953년에 출판한 그의 초기 저작 중의 하나이다. 사실 당시에 레슬리 뉴비긴은 이 책으로 명성을 더 얻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이 책의 큰 기여는 기본적으로 이 책 제목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준다는 점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하면 적절한 이 책의 제목인 *The Household of God*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이 제목이 그로부터 나온 디모데 전서 3:15을 우리 말 성경에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한 말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 주는 말이다. 즉, 디모데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한국 교회의 예배당 건물 초석에 자주 인용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혼동시키고 오도하는 대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잊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책의 큰 기여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준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 책은 몇몇 중요한 요점을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음과 이신칭의를 잘 설명하는 레슬리의 설명 부분은(제 2장 앞부분) 요즈음에 와서 (샌더스[E. Sanders]나 제임스 던[James Dunn]이나 라이트[N. T. Wright] 등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리를 손상시키는 일에 매우 친숙해진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길밖에 없다**"(52,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하며,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의존함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다. 다른 길은 없다"(55,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단언하는 그의 강한 말들은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53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적 가르침과 내포주의적 가르침이 더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단호히 반대해야 마땅하다"(156)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강조하면서 "그 자비가 아니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163), 특히 "믿음의 의를 행위의 의로 보충하려 한다면, 그리스도를 죄의 앞잡이로 만드는 셈이다"(45), 또한 "은혜를 행위로 보충하려 한다면, 이는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48)와 같은 주장은 우리 시대에도 매우 강하게 선언되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임을 잘 설명하는 부분도 그가 아주 긍정적 기여하고(저자에게 질문)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제 5장 앞부분). 특히 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말하면서 "그 날 아침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는 단언을 하는 것은(137)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 오늘날의 신학계와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실질적 부활이 없이도 기독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레슬리 뉴비긴의 이런 말에 강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이해 없이 그저 부활을 말하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도 역시 같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사는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잘 설명하는 부분도(특히 141, 151–53) 레슬리 뉴비긴의 중요한 기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어진 시간"임을 강조

하면서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을 낳지 않는 종말론은 그릇된 종말론임을 천명하고(165, 169), "교회가 그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며(181), "그리스도인이 선교 사역에 참여할 때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고 하면서(185),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찬란한 호칭들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한다"(175)고 언급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175) 말하는 데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도 레슬리 뉴비긴의 큰 공헌이다.(저자 점검필요) 이와 연관해서 "교회들은 (거의 천 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적 상황에 던져졌다"(20)고 말하는 것도 서구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이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은 몇 가지에 대하여 중요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정확한 비판이라고 할 만한 것들로 다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사건으로서의 성질을 제시하는 칼 바르트의 사건적 교회론에 대한 레슬리 뉴비긴의 정당한 비판을 치하해야 할 것이다. 여러 면에서 바르트의 신학과 유사한 입장을 전개하는 뉴비긴이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한 것은 역시 어느 한 사상에 얽매이지 않음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뉴비긴은 바르트가 "종교개혁자들의 역동적 교회 개념"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59, 60). 교회는 사건이라는 바르트의 이해 속에서는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이나 다른 장소, 시기에 속한 회중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매우 옳은 비판을 하고 있다(60). 한마디로 그는 바르트의 교회론에서는 "종말론적인 특징이 역사적 성경을 완전히 밀어낸 것이다"고 하면서(60) 바르트의 역동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뉴비긴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교회는 단순히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이라는 사건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은 그것이 연속성을 지닌 역사적 사회,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단 한번에 구성되고 파송된 사회라는 데에 있다"(70, 71)[1].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르는 수레와 같고, 그 자체가 자신이 전하는 구속 이야기의 일부이다

또한 교회를 선육신의 연장으로 언급하며 그렇게 보려는 일부 천주교회와 어떤 신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하다. 그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급되나 "성육신의 연장으로는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97, 그 자신의 강조점). 더 나아가서 "사실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100).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르는 수레와 같고, 그 자체가 자신이 전하는 구속 이야기의 일부"인 것이다(113).

또한 자신과 비슷한 교회론을 제시하는 호켄다익의 교회론[2]을 소개하면서, 그가 교회를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관념에 반대하면서 순전히 도구로 생각하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론을 제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이므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하면서(180) "교회가 그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정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181)고 비판적인 논의를 잘 전개하고 있다. 교회는 선교 사역을 위한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록 궁극 이전의 것이기는(알 수 없는 표현) 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은 레슬리 뉴비긴의 중요한 기여이다. 교회는 "단순히 그 사명에 의거하여 정의해서는 안 된다... 기능적 견지에서만 정의하면 안 된다"(182). 교회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쓸 때 레슬리 뉴비긴이 품고 있었던 근본적인 주제(agenda)와 그 배후에 있는 그의 신학은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긍정적인 기여를 상당히 무색하게 한다. 레슬리 뉴비긴은 장로교, 회중교회, 성공회, 감리 교회의 연합으로 탄생한 남인도 교회의 초대 감독 중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WCC 형성에 대한 노력과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동방 정교회를 제외한 개신교회, 천주교회,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일종의 교회론적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강연을 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셋이 "모두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며 교회의 모양을 손상시키고 그 메시지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책이 보여 주었다고 한다(133). 또한 그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영입되는가"에 대한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대답이 "모두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결정적인 요소로 주장할 경우에는 왜곡과 오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고 말한다(159).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각추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서로를 인정할 때다.... 우리는 '모두 길을 빗나갔고, 모두 무익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163). 그러나 이 은혜롭게 들리는 말이 결국은 이신칭의와 교회의 표지를 버리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때 레슬리 뉴비긴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려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1) 사실 이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그런데 뉴비긴은 개신교회의 교회론이 이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문장으로 개신교 교회론을 비판하려고 한다(71). 이는 그가 개신교 교회론을 신정통주의적 교회론의 빛에서 보고 개신교 교회론을 오해하여 잘못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할만한 것이다.

2) Cf. J. H. Hoekendijk, *in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July, 1952), 특히 334: "교회의 본질은 그 기능으로 충분히 규정지을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